

광주지역 노로바이러스 장염환자 증가

지난달 5주차 노로바이러스 검출률 51.2%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 등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광주지역 협력병원에 설사, 구토 등 장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을 통해 원 인병원체를 분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1월 34.1%(126건 중 43건), 2월 37.7%(122건 중 46건), 3월 27.6%(87건 중 24건)를 보이다 4월 마지막 주 5.3%(19건 중 1건)까지 감소했으나 5월 들어 4주차에 46.1%(89건 중 41건), 5주차 51.2%(86건 중 44건)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1~4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서 늦은 봄에도 집단발병이 보고되는 등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구토물, 분변 등)을 통한 비말·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다.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난다.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편두통, 미열 등이 있으며 위장관염 증상이 24~72시간 지속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와 소독, 철저한 세탁물 관리 등이 중요하다.

/김용범 기자

서구 폐렴 미접종 어르신 무료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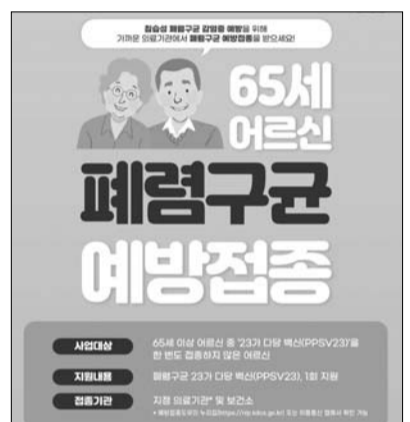
65세이상,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 1회 지원

서구가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에게 폐렴 무료접종을 1회 지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뇌수막염, 심내막염은 치명적이며 수막염의 경우 사망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이다.

65세 이전에 폐렴을 접종한 경우에는 과거 접종 백신에 따라 접종 가능 유무가 결정되므로 보건소에



방접종실(062-350-4156)로 문의해야 한다.

/이달호 기자

순천국유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 시행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20~932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6·1지방선거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368건

광주시선관위 39건 접수...전남 162건 달해

고발사건 중 '기부'·'허위사실 공표' 비중 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3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관련 위법 신고는 총 201건(광주 39건·전남 16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시선관위는 현재 접수한 39건 가운데 7건을 고발했다. 이 중 현행 공직선거법을 어긴 기부행위 2건과 허위사실 공표 2건이 가장 많았다. 공무원 등 선거 관여, 사전투표지 촬영, 기타 위법사항 등도 1건씩 총 3건

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인쇄물·시설물 관련 위법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1건은 경고 조치됐는데 인쇄·시설물 관련 위법(1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부행위 등 4건 ▲허위사실 공표 3건 ▲기타 3건 ▲여론조사 2건 ▲문자메시지 이용 2건 ▲투표지 촬영 1건 순이다.

전남도선관위는 관련 사건 162건 가운데 39건을 고발했다.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방·허위사실 공표와 인쇄·시설물 등도 4건씩 고

발 조치됐다. 도 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관여 3건, 메시지 이용 2건, 유관 기관·사조직 1건, 기타 12건 등도 적발, 고발했다.

또 기부 행위 3건을 비롯한 6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비방·허위사실 공표 2건, 기부행위 1건 등 3건은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114건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다. 위법 유형은 문자메시지 이용 35건, 인쇄·시설물 관련 30건, 기타 25건, 기부행위 등 13건, 비방·허위사실 공표 6건, 공무원 선거 관여 5건 순이었다.

시·도 선관위 고발 사건 중에는 기부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6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도 현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167건을 접수, 133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36건을 접수했다. 유형 별로는 현수막 훼손 15건, 허위사실 공표 8건, 후보자 비방 7건, 금품 수수 3건, 선거 자유 방해 2건, 기타 1건 등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상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3건(3명)은 불송치 등 종결 처분했으나 나머지 33건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에는 선거 관련 사건 131건이 접수됐다. 허위사실 공표 34건, 금품 제공 32건, 범죄 등 공보물 훼손 9건, 사전 선거 7건, 공무원 개입 7건, 기타 42건 등이다. 조사 대상자는 총 187명에 이른다.

이 중 19건은 불구속 송치됐다. 12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00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도기 기자

신안 홍도 해역에 갯생이모자반 대량 유입...초동 대처 총력

혁신·비금·도초 등 추가 확산 우려...모니터링 강화

전남 신안군은 최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분포하다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의 불청객' 갯생이모자반이 홍도 해역에 대량 유입됐다고 31일 밝혔다.

신안군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요 해역에 187의 갯생이모자반이 유입됐다. 통상 갯생이모자반은 2월 이후 산발적인 양상을 보이다 수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도는 물론 혁신과 비금, 도초 등 주요 우심해역에 추가 유입이 예상돼 초동 대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갯생이모자반은 해안가에 유입될 경우 악취 발생과 자연경관을 오염시키고 양식시설에 부착해 수산물 품질을 훼손시키고 있으며, 모자반 제거를 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돼

어가피해 및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갯생이모자반 대량 유입 시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19억9000만원을 올 초 읍·면 배정해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바다환경지킴이, 어촌계 조업어선, 여객선 등을 활용한 통합 예찰활동으로 신속한 상황전파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 상황이다.

/신안=박정래 기자

광양시보건소,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7일부터 운영 개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40억 투자...건강지킴이 역할 특목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6월 7일부터 성황3길 19번지에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인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개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해 건립됐다. 골약동사무소 옆 지상 3층 연면적 956㎡(289평) 규모로 ▲1층 건강상담실, 사무실 ▲2층 영양교육실,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실, 주민참여

실, 모유수유실 ▲3층 보건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간호사, 영양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할당, 할당,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체성분 측정 등의 건강검사와 맞춤형 상담 제공 등 건강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소도구를 이용한 근육 뭉침 만들기, 어린이 비만예방교실, 심뇌혈관 예방, 입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맞춤형 건강식단을 제공하는 영양교실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



정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연계실, 주민참여실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건강동아리, 건강간담회 등 주민 친화형 활동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미육 통합보건과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로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건강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전남소방, 대형 축사시설 6월 한달 소방특별조사

전남도 소방본부는 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대형 축사시설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축사기 축사시설의 냉·환풍기 사용등급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영광 불갑면 한 돼지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1만8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인근 아산으로 옮겨 산립 25ha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별조사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형축사 76개소(우사 25·돈사 40·계사 8·기타 3)로 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반이 투입된다.

주요 조사 및 지도 내용은 ▲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뱃짚류 등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여부 ▲기타 가연물질 적재·방치 등 주변 환경의 화재 발생 위험요인 제거 ▲초기 화재 대응요령 등 축사 관계자 화재안전전설명 추진 등이다.

이관섭 전남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관계인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초기 화재 대처 방법을 숙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